

# 민주 '탈당 카드' 제시...극적 타결

열린우리당 탈당 그룹인 통합신당 모임과 민주당이 다음달 6일 통합신당 창당에 합의함에 따라 박여권의 대통합에 탄력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대선 주자들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2차 통합협상에서 외부 세력 영입 및 독자신당 창당 등을 둘러싸고 결렬 위기까지 치달았던 두 정파 간의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은 민주당이 일부 현역의원들을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 탈당시킬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독자신당 창당 카드는 별다른 명분과 세를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통합신당모임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통합

## ■ 통합신당모임-민주 내달 6일 통합신당 창당 합의

### 지분협상·외부세력 참여 등 공방 일듯

신당모임 측이 이미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압력적인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통합신당 창당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측 강경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전체적인 대세가 통합신당 창당으로 기운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추후 협상과정에서 지분협상 등을 놓고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민주당은 과거 '새천년민주당' 방식으로 민주당의 자산과 부채가 승계되는 형식의 만큼 지배주주에 준하

는 지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신당모임은 민주당이 통합세력의 한 축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민주당, 신당모임, 시민사회세력이 동일한 지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당모임 측에서는 통합신당이 '도로 민주당'의 비난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명이나 지도체제 변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별도의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산을 그대로 가져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명이나 지도체제는 기존 민주당의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지도체제는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는 공동대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며 당명도 '민주'라는 고유 명사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민사회세력의 참여 범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중도개혁주의에 입각한 '검증론'을, 신당모임은 외부세력의 대폭 수혈로 맞서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한, 신당창당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5개 시·도당 구성문제, 지역위원장 선정 및 관리 방안 제도 문제,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후보자 선출 규정은 18대 총선 등과 맞물려 치열한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고 통합신당 창당을 인준할 예정인 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전 서울시장 18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산강벚길살리기협의회 토론회에 참석, 초대기수의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이명박 보트 타고 영산강 돌며 운하 건설 사전답사 민주당 지도부·의원들 무안·신안 보선 지원 행렬

### ■ 4·25 재·보선 현장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8일 4·25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차 광주·전남을 방문, 같은 당 소속 후보들을 지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신안군 지도읍 시장을 돌면서 '1번 후보를 찍어달라'며 강성만 후보를 지원한 데 이어 오후에는 약 1시간 동안 직접 보트를 타고 영산강을 둘러보며 호남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 답사를 했다.

그는 특히 보트 위에서 자문교수단과 함께 수질 검사를 한 뒤 "벚길을 살리기에 앞서 물길을 살려야 한다. 영산강이 5대 하천의 하나인데 수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어 오후 5시에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특강을 한 뒤 광주시 광천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등을 돌며 황승국(남구 광역의원)·정명조(서구 기초의원)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김대중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18일 광주를 방문해 지방문 시장위원장, 김재근 전 시장위원장 등과 함께 당소속 후보를 지원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후 광주공원 노인복지관과

백운시장 등을 돌며 이창호(남구 광역의원) 후보를 도왔으며 이후에는 양동시장, 염주4거리, 풍암동 동사무소 앞 등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순회 유세를 하며 김애정(서구가 기초의원)·정진백(서구가 기초의원)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무안·신안 보궐선거 지원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18일 김홍업 후보의 무안·신안지역 유세에는 이낙연·최인기·이상열·신종식·채일병 의원 등 전남 출신의원들이 함께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김영진 광주시장위원장, 김동신 광주북갑위원장, 정균환 전 의원과 열린우리당 박병국 의원 등도 선거 사무소를 찾아 선거운동원을 격려했다.

또 19일에는 박상현 대표와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 등이 무안지역 연설원으로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동맹 대선 주자인 노회찬 의원은 19일 광주를 방문, 같은 당의 김대우(서구가 기초의원) 후보를 지원한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화정주공과 내방주공 아파트 주변 거리에서 지원유세를 한 뒤 광주시청 앞에서 비정규직 투쟁에 참가한다는 계획이다.

/정홍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를 방문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이 18일 오후 서구 화정동 거리유세에서 같은 당 소속인 서구 기초의원 김애정 후보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기득권 지키기 위한 분열적인 소통합”

### 김근태 前의장 신당모임-민주 통합신당 비난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은 18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통합신당모임과의 신당창당 움직임에 대해 “지역과 지역연합을 담보로 한 통합은 국민의 공감대와 감동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우리당 광주시당에서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이 통합 논의과정에서 특정 세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일방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분열적인 소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분열이 되면 얼마나 참혹한 상황이 올 것인지,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 사람들은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특정지역을 매개로 한 소통합 움직임은 특정지역의 고립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호남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민주세력의 반

(反)한나라당 대통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위해 평생 노력해 왔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편에 확고히 서왔고, 햇볕정책을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온 사람만이 호남정신을 대변할 수 있다”며 “외람되지만 살아 있는 호남정신의 계승자는 김근태”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호남정신을 강조하는 것을 대선출마 선언으로 간주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선출마)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공식적인 것(출마선언)은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합을 위해 기득권을 버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득권을 버리는 것이 국민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문광·해수부, 법제·보훈처

### 오늘 4개부처 개각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보훈처 등 4개 부처 장관(급)을 교체하고, 기획예산처, 행정부 2차관과 법제처, 보훈처 차장을 바꾸는 정부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19일 인사추천회의의 의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가 나는 대로 빠르면 이날 중 후임 인선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문화관광부 장관에는 옛 문화체육부 차관을 지낸 김종민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시인 출신인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후임 해수부장관에는 강무현 전 해수부 차관과 김영남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각각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장에는 남기명 법제처 차장의 승진 기용이 유력한 가운데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복수 후보로 올라 있고, 보훈처장에는 김정복 보훈처 차장과 여익구 전 남동발전 감사가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 차관 후보는 반장식 기획예산처 재정운영실장, 이창호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김대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행정부 2차관 후보는 이승우 전 전북도 정부부처사, 합법덕 전 충북도 정부부처사 각각 2~3배수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올 5·18기념행사 YS·합천군수 초청

광주 5·18 단체가 제27주년 5·18기념행사에 김영삼 전 대통령을 초청하기로 했다. 또 '일해 공원' 명칭 변경으로 논란을 빚은 심의조 합천군수에게도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어서 이들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회장 김후식)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1일 간부 회의를 통해 27주년 기념행사에 김 전 대통령을 초청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주중에 같은 오월 단체인 '유족회'와 '구속 부상자회'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5·18 부상자회'는 지난 4월 초 김 전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방문 의사를 전달받고, 재임 당시 '5·18 특별법이 제정되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를 단죄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 행사위원도 지난 16일 연석회의를 갖고 '일해 공원' 명칭 변경 논란을 일으킨 심의조 합천군수와 군의회의원 등 30여 명이 명을 공식 초청하기로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光州日報 창사 55 1952-2007

# IMPERIAL 세정아울렛 2층 임페리얼 [광주상무점] OPEN

EVENT

## 봄·여름 신상품 30~50% SALE (일부품목제외)



햇살이 더욱 새롭게 느껴지는 계절. 하이브리드 캐주얼 임페리얼이 자신의 삶과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삶의 맛을 즐기는 당신에게 감성 만족의 브랜드 자부심을 누릴 수 있는 이름, 임페리얼 그 주인공의 고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구매고객님께 사은품 증정 | 매장위치: 광주 세정아울렛 2F(엘리베이터 앞 에스컬레이터) T.062)384-8800